

## 한국 독립운동과 외국인 독립유공자\*

도 면 회\*\*

### [초 록]

2019년 11월 현재 한국정부에 의해 포상된 외국인 독립유공자는 9개국에 걸쳐 총 89명으로, 중국 40명, 미국 21명, 러시아 11명, 영국 6명, 캐나다 5명, 아일랜드 2명, 일본 2명, 멕시코 1명, 프랑스 1명이다. 이 중 한국인 후손 19명을 제외하면 총 70명이다. 이들은 재미 한국 사회, 특히 이승만 중심의 독립운동을 지원한 구미인, 둘째,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원한 손문, 황흥, 장개석, 진과부 등 중국 국민당 요인, 셋째, 알렌, 헐버트, 에비슨, 스코필드 등 미국·캐나다 선교사들, 넷째, 베델, 맥켄지, 조지 쇼 등 영국·아일랜드인과 후세 다쓰지, 가네코 후미코 등 일본인이다. 외국인 독립유공자 포상이 이승만, 대한민국임시정부, 선교활동 지원자로 국한된 것은, 분단과 한국전쟁으로 인해 사회주의·아나키즘 계열 독립운동, 이승만과 대립했던 독립운동 단체 등을 포상 대상에

---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8924764).

\*\* 대전대학교 H-LAC 역사문화학전공 교수

주제어: 외국인 독립유공자, 독립운동, 선교사, 이승만, 대한민국임시정부, 중국국민당  
Foreigners of National Merit, Independence Movement, Missionaries, Syngman Rhe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hinese Kuomintang

서 제외해 왔기 때문이다. 향후 외국인 독립유공자 포상은 지역적으로는 러시아와 중국, 동유럽, 일본으로 확대하고, 이념적으로는 사회주의·아나키즘, 이승만이나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대립했던 민족주의 계열까지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 1. 외국인 독립유공자 활동에 대한 인식 상황

한국이 일본에 의해 주권 침탈을 당한 1905년부터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삼일운동이나 6·10 만세운동과 같은 대규모 투쟁이나 소규모 비밀결사운동 등을 제외하면 국내에서의 독립운동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다. 독립운동 공간은 국외로 확장되어, 러시아 연해주, 중국 관내 지역과 만주, 미국 워싱턴이나 로스앤젤레스,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까지 뻗어나갔다. 이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일부 관료, 단체 및 개인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독립 이후 한국 정부는 한국 독립운동을 지원해준 외국인들을 ‘외국인 독립유공자’란 개념으로 포상해 왔다. 2019년 11월 현재 독립운동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포상을 받은 외국인은 9개국에 걸쳐 총 89명이 등록되어 있다. 국적별로는 중국 40명, 미국 21명, 러시아 11명, 영국 6명, 캐나다 5명, 아일랜드 2명, 일본 2명, 멕시코 1명, 프랑스 1명이다. 이 중 한국인 후손 19명을 제외하면 총 70명이다.<sup>1)</sup>

---

1) 국가보훈처(2019), 「독립유공자 포상현황 중 외국인현황」, 국가보훈처 웹사이트, 국가보훈처, 2019. 12. 15. <http://e-gonghun.mpva.go.kr/user/IndepMeritsRewardStat.do?goToCode=10001>. 외국인 독립유공자에 대한 포상은 대한민국 법률 제8852호 「상훈법」 및 대통령령 제20741호 「상훈법시행령」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상훈법」 제2조 “대한민국훈장 및 포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에게 수상한다”라는 규정이 근거 조항이다. 이하 자세한 규정에 관해서는 국가보훈처(2008), 『독립유공자 포상업무 매뉴얼』 국가보훈처 참조. 본 논문에서 제외된 한국인의 후손으로서 외국인인 자, 즉 한국계 외국인 19명에 대해서는

한국 독립운동을 도와준 외국인은 이들 외에도 무수히 많았다. 삼일운동 전후 많은 구미인 선교사들이 일본의 잔혹한 탄압에 분개하여 한국을 도와주었으며, 중국, 러시아, 일본에도 한국 독립운동의 대의명분에 공감하여 지원해준 정치가, 사회운동가, 지식인, 노동자들이 있었다. 최근 한국 정부가 독립운동을 역사의 주류로 설정하려는 움직임(볼 때<sup>2)</sup> 외국인 독립유공자에 대한 발굴 포상 작업이 더욱 활성화되리라 본다.

외국인 독립유공자에 대한 포상은 1950년 전후와 1961년 직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sup>3)</sup> 그 당시는 이들의 공로에 관하여 충분히 자료를 발굴하고 연구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1960년대 이후 한국 독립운동에 대한 연구가 엄청난 속도와 분량으로 진행되어 왔어도, 외국인 독립유공자에 대한 연구는 그만큼 진전되지 않았다. 1990년대 후반 이후에야 이들에 대한 연구가 진척되기 시작하여, 이미 포상된 외국인들에 대한 개별 연구가 축적되었다. 대부분의 연구는 개인 또는 그가 속한 국가나 단체, 정치세력 별로 진행되었다. 국외에서 전개된 한국 독립운동의 배경이나 상황과 관련한 연구 성과들도 산출되었다.<sup>4)</sup>

---

추후 별도의 연구 작업이 필요하리라 본다.

- 2) 오원석(2011), 「文, 임정 101주년 기념사 “친일 아닌 독립운동이 역사 주류”」, 중앙일보 웹페이지, 중앙일보, 2020. 4. 11. <https://news.joins.com/article/23752327>.
- 3) 외국인 독립유공자에 대한 포상은 1950년대 14명, 1960년대 29명, 2010년대 15명을 제외하면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는 각 5명 내외에 불과하다. 각 시기별 포상 상황과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한 분석은 배석만(2019), 「외국인 독립운동 유공자의 현황 분석과 이후 과제」 『외국인 독립유공자의 활동과 한국 독립운동의 세계사적 의의』, 백범김구기념관 한국역사연구회 국제학술회의 발표문 참조.
- 4) 외국인 독립유공자의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연구는 유럽인·미국인, 중국인으로 진행되어 왔다. 유럽인·미국인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 성과들이 있다. 고정후(2004), 『이승만과 한국독립운동』, 연세대학교출판부; 김승태(2006), 『한말·일제강점기 선교사 연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윌리엄 스코트, 연규홍 옮김(2009), 『한국에 온 캐나다인들』, 한국기독교장로회출판사, 2009; 홍선표(2012), 「한국독립운동을 도운 미국인」,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3; 김도형(2012), 「한국독립운동을 도운 유럽인 연구」, 『한국학논총』 37,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이러한 연구 경향으로 인하여 한국인들은 외국인 독립유공자가 한국 독립운동에 기여한 역할을 그다지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았다. 한국 독립운동을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저항으로만 인식하여 여타 외국과 일본 사이의 대립·갈등 관계에 대해서는 중요한 변수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많았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고는 한국 독립운동에 기여한 외국인들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외국인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연구 성과를 독립운동의 전체적 흐름에 맞추어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해 있는지 점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외국인 독립유공자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관련 국가들과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고 개선함은 물론, 한국 독립운동을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지구적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열어 줌으로써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세를 갖추는 데도 도움을 주리라 본다.

## 2. 대한제국 국권 피탈기의 유공자들(1905~1910년)

1904년 2월 러일전쟁 발발과 이듬해 9월 포츠머스 강화조약으로 인해 한국의 운명은 백척간두에 놓였다. 2개월 뒤 특명전권공사로 방한한 이토 히로부미가 군사력을 동원하여 정부 대신들을 협박하면서 을사조약을 강제 체결했다. 고종은 이 조약에 끝까지 비준 서명을 하지 않았지만 대외적으로 한국의 외교권은 일본이 대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후 고종은 밀사 또는 특사를 러시아, 미국, 네덜란드 등 열강에 파견하여 을사조약이

---

중국인들에 대한 연구로는 노경채(1997), 「중국관내 조선인의 민족해방운동과 중국국민당」, 『아시아문화』 13; 한상도(2004), 『중국혁명 속의 한국독립운동』, 집문당; 한시준(2010), 「중한문화협회의 성립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5.

최근 외국인 독립유공자 70명에 대한 기존 연구 성과를 종합하고 관련 자료를 탐색한 결과가 한국역사연구회 엮음(2019), 『한국인의 벗, 외국인 독립유공자』 국가보훈처로 나왔다.

무효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열강 정부는 포츠머스 조약에 규정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지도 보호 감리권’을 승인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종의 요청에 의하거나 또는 개인적 결단에 의해 멸망해 가는 대한제국을 도우려는 구미인들이 있었다.

호레이스 뉴튼 알렌(Horace Newton Allen)과 호머 베잘렐 헐버트(Homer Bezaleel Hulbert)는 미국에서 선교사 또는 교사로 한국에 온 인물들이다. 알렌은 의료 선교사로 왔다가 주한 미국 공사까지 역임하였다. 러일전쟁 이전 루즈벨트의 친일적인 정책을 비판하고 일본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다.<sup>5)</sup> 헐버트는 알렌보다 먼저 1880년대 초 육영공원 교사로 와서 최초의 순 한글 교과서 『사민필지』를 만들고 잡지 『The Korean Repository』를 발간하여 한국 사정을 해외에 알리는 역할을 했다. 을사조약 직전 일본의 침략 사실을 알리고 독립 지원을 요청하는 고종의 친서를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했으나 미국은 을사조약으로 인해 고종의 친서가 아무 효력이 없다는 응답을 전함으로써 그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어서 1907년 6월 개최되는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로 임명받아 러시아, 독일, 스위스, 파리, 런던 등지를 순회하면서 한국이 처한 현실을 호소하고 일본의 침략을 비판하는 연설과 원고를 게재하였으나 역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일본의 한국 병탄 이후에는 일본이 조작한 105인 사건을 규탄하는 글을 기고하고 삼일운동 시기에는 일본의 잔학상을 고발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sup>6)</sup>

5) 본고의 외국인 독립유공자의 이름은 모두 국가보훈처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대로 사용하였다. 구미인과 일본인은 영어와 일본어 발음을 사용하였고 중국인은 두견웨이(杜君慧)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어 한자 발음을 사용하였다. 알렌에 대한 연구는 민경배(1992), 『알렌의 선교와 근대한미외교』, 연세대학교출판부; 손정숙(2004), 「주한 미국공사 알렌(H. N. Allen)의 외교활동(1897~1905)」, 『이화사학연구』 31호 참조. 본 연구는 개별 외국인들의 활동을 정리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조한 면수는 표기하지 않았다.

더글러스 스토리(Douglas Story)와 어네스트 베텔(Earnest Thomas Bethell)은 영국 언론인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스토리는 1906년 2월 고종에게 받은 을사조약 무효 취지의 밀서와 자신이 취재한 한국의 실정을 런던 트리뷴지에 「한국의 호소 트리뷴지에 보낸 황제의 성명서, 일본의 강요, 열강의 간섭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하였다. 베텔은 고종의 지원금으로 발간하는 『대한매일신보』에 을사조약 직후 장지연이 『황성신문』에 쓴 「시일야방성대곡」을 한글과 영문으로 게재하였다. 1907년 1월에는 스토리가 트리뷴지에 전달한 고종의 밀서를 사진판으로 게재하였다. 베텔은 일본의 갖가지 방해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의병 진압을 비판하고 의병을 옹호하는 기사를 내보냈다.<sup>7)</sup>

### 3. 삼일운동 전후 독립운동과 외국인의 활동(1910~1930년)

#### 3.1. 국내와 간도에서 독립운동 조사 보고와 국제 여론화

삼일운동이 전 민족적 만세시위로 폭발하면서 일본 군경은 평화시위를 하는 한국민들을 잔혹하게 폭행하고 학살하기 시작하였다. 참상을 목도한 외국인 언론인과 선교사들은 의분에 못 이겨 만세 시위에 가담한 학생·시민을 숨겨주거나 일본 군경의 학살 만행을 언론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 일본의 한국 식민 통치가 전혀 문명적이지 않음을 폭로하였다.

대표적인 인물이 프레드릭 맥켄지(Frederick A. Mackenzie)와 프랭크

---

6) 안드레 슈미드(2004), 「오리엔탈 식민주의의 도전 : Anglo-American 비판의 한계」, 『역사문제연구』 12; 김동진(2010), 『파란 눈의 한국혼 헬버트』, 참좋은친구; 김권정(2015),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미국인 헬버트』, 역사공간.

7) 더글러스 스토리 개인에 대해서는 주로 베텔 연구 성과에서 함께 언급되는 정도였다. 정진석(2013), 『나는 죽을지라도 신보는 영생케 하여 한국동포를 구하라 — 대한매일신보 사장 배설의 열정적 생애 —』, 기파랑, pp. 217-230.

스코필드(Frank William Schofield), 스티븐 벡(Stephen Ambrose Beck)이다. 맥켄지는 이미 1908년 『대한제국의 비극』(The Tragedy of Korea)을 발간하여 일본의 한국에 대한 침략과 항의 의병의 활동상을 알린 바 있고, 1920년에는 삼일운동을 취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유를 위한 한국인의 투쟁』(Korea's Fight for Freedom)을 출간하였다. 이 책은 반일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던 영국 사회에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으며, 영국 의회 내에서 극동문제를 논의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sup>8)</sup>

한국인들에게 석호필 박사로 잘 알려진 캐나다인 스코필드는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세균학·위생학 담당교수였다. 그는 잡혀가는 삼일운동 참여 학생들을 구해 주고 영어신문 『Seoul Press』에 일본에 대한 비판 기사를 투고하였다. 4월 18일에는 4월 6일에 일어난 수촌리 학살, 4월 15일의 제암리·고주리 학살사건 현장을 직접 답사하고 사진을 찍어 「제암리의 대학살」이란 제목으로 상해에서 발행되는 『The Shanghai Gazette』에 게재하여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고문과 학대를 당한 한국인들의 진술과 부상자·사망자 통계를 모아 미국 기독교 연방 위원회로 전달하여 그 내용이 1919년 7월 『The Korean Situation』이란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1919년 9월에는 일본 도쿄에서 열린 <극동지구 파견 기독교 선교사 전체회의>에서 극동의 선교사 800여 명 앞에서 조선총독부와 일본 군경의 만행을 보고함으로써 일제의 요시찰 인물로 떠올랐다. 그는 결국 1920년 4월 1일 근무 계약 만료로 캐나다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sup>9)</sup>

벡은 스코필드보다 열흘 늦은 4월 29일 제암리사건 현장을 방문하였다. 영국 영사 로이즈와 캐나다 선교사 하디와 게이, 노블, 케이블, 빌링주 등

8) 안드레 슈미드(2004); 김도형(2012), p. 541.

9) 이만열(2011), 「스코필드의 의료(교육)·사회 선교와 3·1독립운동」 『한국근현대사 연구』 57; 도레사 E. 모티모어(2016), 전경미·양성현 역,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와 한국』, KIATS.

과 『Japan Advertiser』 기자 등과 함께 방화와 학살을 확인한 그는 미국으로 돌아가서 교회 박람회에 일제의 잔인한 시위 진압과 한국인의 참상을 폭로하고, 미국 상원의원 노리스에게 일본의 야만성과 비문명성을 강조하였다.

평안북도 신천 신성학교 교장 조지 새넨 맥쿤(George Shannon McCune), 평양 송실학교 교사 일라이 모우리(Eli Miller Mowry), 군산 영명학교 교사 윌리엄 린튼(William A. Linton), 함경북도 성진 제동병원 원장이자 보신학교 교장 로버트 그리어슨(Robert G. Grierson) 등도 삼일운동을 목격하고 참여자들을 은닉하거나 일본의 폭정을 전세계에 폭로하는 역할을 하였다. 맥쿤은 일본의 식민통치 초기 105인 사건 피고인들을 변호함은 물론, 일제가 행한 악랄한 고문과 사건 날조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렸다. 삼일운동에 참여한 신성학교 학생들을 숨겨주고, 1920년 8월 미국 의회 의원단이 방한했을 때 독립운동가들이 작성한 선언서를 번역하여 전달하기도 했다.<sup>10)</sup> 린튼은 미국에 돌아가 군산의 만세 시위와 일본의 탄압 사실을 폭로하였다.<sup>11)</sup> 모우리는 독립운동 선언서를 소지함은 물론 참여한 학생을 숨겨준 죄로 체포되어 조선고등법원 상고심에서 벌금형까지 받을 만큼 삼일운동에 깊숙이 관여하였다.<sup>12)</sup> 그리어슨 역시 항일의병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1910년대 초부터 일본의 한국 통치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삼일운동 시기에는 기독교인들이 만세 시위를 준비하는 작업을 도와주었으며, 부상당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치료해주면서 일본 경찰의

10) 이동진(1992), 「한국교회와 송실의 은인 尹山濶」, 『인물로 본 송실 100년』 1집, 송실대학교; 안종철(2005), 「윤산은의 교육선교 활동과 신사참배문제」, 『한국기독교와 역사』 23.

11) 오승재·김조년·채진홍(2003), 『인돈 평전 : 윌리엄 린튼의 삶과 선교 사역』, 지식산업사; 최영근(2015),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 인돈(William A. Linton)의 교육선교」, 『한국교회사학회지』 40.

12) 이성전(2007), 서정민·新山美奈子 옮김, 『미국선교사와 한국 근대교육 : 미션스쿨의 설립과 일제하의 갈등』,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만세 시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주장을 하였다.<sup>13)</sup>

간도 지역에서 활동하던 캐나다 장로회 선교사 아취볼드 바커(Archibald Harrison Barker), 스탠리 마틴(Stanly H. Martin)도 있었다.<sup>14)</sup> 바커는 1913년 최초의 간도 주재 선교사로 부임하였고, 마틴은 1916년 제창병원을 설립하여 의료 선교를 하였다. 바커가 운영하는 교회와 학교는 치외법권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논의하는 장소로 활용되었다. 만세 시위는 1919년 3월 13일 용정촌에서 일어났다. 만세시위 현장에서 총을 맞아 17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부상당하자 마틴은 이들 시신을 수습하고 치료하였으며, 바커는 한국인 목사, 장로들과 함께 일본군의 만행을 조사하고 국제여론화할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듬해 1920년 11월부터 일제가 간도 지역 한국인 마을을 불태우고 학살하는 경신년참변이 일어났다. 마틴은 즉시 용정촌 인근 기독교 마을 장암동에 가서 일본군이 만행을 벌인 현장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캐나다 선교본부와 영국 외무성에 보내 국제 여론을 불러 일으켰다.

서간도 지역에서 활동한 무역업자 조지 쇼(George Lewis Shaw)는 영국 식민지였던 아일랜드 출신이라 한국 독립운동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원래 일본에 대한 감정도 좋지 않았다. 자신이 경영하는 기업 이룡양행 2층을 대한민국임시정부 교통국의 지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을 뿐 아니라,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근거지로도 제공하였다. 의열단원 김시현 등은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진행하기 위한 거점으로, 임시 정부는 쇼가 운영하는 선박을 통의부, 정의부 등 독립운동 단체에 무기와 약을 운송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sup>15)</sup>

13) 허윤정·조영수(2015), 「일제하 캐나다 장로회의 선교의료와 조선인 의사 : 성진과 함흥을 중심으로」, 『의사학』 51.

14) 김승태(2011), 「캐나다 장로회의 의료선교: 용정 제창병원을 중심으로」, 『연세의사학』 제14권제2호.

15) 유진선(1988),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교통국과 연통제연구 — 이룡양행을 중심으로 —」, 영남대학교 석사논문.

### 3.2. 구미에서의 독립운동 지원

삼일운동 전후 파리에서 열린 제1차세계대전 강화회의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기대를 걸고 있었다. 상해의 운동가들이 조직한 신한청년당은 독립청원서를 미국의 윌슨대통령에게 전달하고 김규식을 수석대표로 삼아 파리강화회의에 대표단을 보냈다. 미국의 이승만과 정한경은 미국의 윌슨 대통령에게 한국의 완전 독립을 담보로 당분간 국제연맹의 위임통치를 받게 해달라는 청원서를 보냈다.

삼일운동이 일어나고 러시아 연해주, 한성, 상해 등 여러 지역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가 1919년 9월 11일 상해에서 이들 모두가 합쳐 통합 임시정부가 출범하였다. 초기 조직은 대통령에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휘, 내무총장 이동녕, 법무총장 신규식, 재무총장 이시영, 노동국총판 안창호 등으로 구성되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국내 행정을 담당할 연통부와 국내와의 연락을 담당할 교통국을 두고, 외교 업무는 이승만이 워싱턴에 설치한 구미위원부를 통해 추진하였다. 구미위원부는 워싱턴에 두고 산하 조직으로 필라델피아 통신부, 파리사무소, 런던 사무소 등을 두었다. 그런데 이승만은 1920년 12월부터 1921년 5월까지 단 6개월만 상해에 체류하였을 뿐, 나머지 기간은 모두 미국에 거주하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였다.

이승만은 구미위원부의 워싱턴사무소를 중심으로 한국 독립을 승인받기 위한 출판물을 간행하는 한편, 1919년 5월부터 ‘한국친우회’(League of the Friends of Korea)라는 단체를 미국 전역 나아가 파리와 런던까지 확대시켜 나갔다. 한국친우회의 회원 수는 일본 측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 3,000명, 한국친우회 측의 추산에 따르면 미국 내 21개 도시에 걸쳐 2만 5,000명이라고 하였다.

구미인 독립유공자 중 상당수는 구미위원부와 한국친우회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sup>16)</sup> 구미위원부 활동가로는 변호사 프레데릭 돌프(Frederick

A. Dolph)가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다. 그는 구미위원부 법률고문을 담당 하면서 『한국 적요』(Brief For Korea), 『일본의 한국 경영』, 『극동의 대차 대조표』 등을 집필하였다. 1920년 9월 15일에는 김규식 지시에 따라 1년 6개월간 진행된 구미위원부의 외교 및 선전 활동을 종합 정리한 『업무 보고서』(Dolph's Report)를 제출하였다. 보고서의 내용은 첫째, 3·1독립선 언서와 한성정부 선포 문건을 얻어서 그들 문서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 일본과 서방 열국에게 정식 통고했다는 점, 둘째, 미국 신문 및 잡지에 한국에 대한 각종 기사와 논설이 9천 번 이상 실렸다는 점, 셋째, 미국 의회에서 한국 문제와 관계된 의안이 상원에 2회, 하원에 1회 제출되었고, 상원의원 18명과 하원의원 3명이 한국 문제에 대하여 연설하였다는 점 등이었다.

한국친우회에는 필라델피아 대형교회 목사였던 플로이드 톰킨스(Floyd Williams Tomkins), 상원의원 조지 노리스(George William Norris)와 셀턴 스펜서(Selden Palmer Spencer), 선교사 스티븐 백과 해리 화이트링(Harry Charles Whiting)과 미네르바 구타펠(Minerva Louise Guthapfel), 대학교수 허버트 밀러(Herbert Adolphus Miller) 등 많은 미국인이 관여하였다. 톰킨스는 1920년 5월 15일 최초로 결성된 한국친우회 필라델피아 지부 회장을 맡았으며 1천여 명이 모인 한국친우회 창립 행사에서 일본의 한국 지배 철폐 결의안을 작성 채택하게 하였다. 6월 6일 워싱턴D.C.에서 개최된 대중집회에서 그리피스, 서재필과 함께 연사로 등단하여 일본 만행을 규탄하는 강연을 하였다. 1921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 초까지 개최된 워싱턴회의에서 일본대사에게 한국 독립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고, 미국 대표단장 휴즈에게 한국 대표단에게 발언 기회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러한 요청이 거부된 후 1923년 일본 관동대진재에서 한국인이 무참

16) 이하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이승만이 주도한 구미위원부와 한국친우회 등 미국인 들에 대해서는 다음 두 연구에 의거하였다. 고정휴(2004), pp. 101-136, pp. 349-424; 홍선표(2012), pp. 172-211.

하게 학살당한 사건을 들어 그해 11월 20일 한국친우회 회장 명의로 미국무장관에게 항의서한을 보냈다.

노리스와 스펜서 두 상원의원도 한국친우회 활동에 적극 협력하였다. 노리스의 지역 기반인 네브라스카주는 1905년경부터 한국인들이 자리 잡았고 이를 기반으로 박용만이 한인소년병학교를 설립한 곳이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1920년 3월 주지사와 부지사 등 유력인사 1천여 명이 한국 독립 청원서를 의회에 제출하였다. 노리스가 이를 받아들여 의회에서 한국 독립이 필요하다는 연설을 하고 찰스 토마스 의원이 제출한 한국 독립안에 찬성 투표를 했다. 스펜서는 구미위원부의 법률고문 돌프로부터 삼일운동의 발발과 한국의 정세, 일본의 식민통치 실상을 고발한 『한국 적요』(Statement and Brief for the Republic of Korea)라는 보고서를 공식 전달받고 이를 상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9월 19일 미국 의회 회의록에 수록하여 한국 문제의 증거로 삼았다. 이러한 노력에 의해 아일랜드와 한국 독립 동정안이 의회 결의안으로 제출되었던 것이고, 스펜서 역시 찬성표를 던졌지만 한국의 독립안은 부결되고 말았다.

한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던 해리 화이트, 스티븐 벡, 미네르바 구타펠도 미국에 돌아와서 각지를 순회하면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잔악한 지배 상황과 한국인의 참상을 알리는 데 노력하였다.<sup>17)</sup> 특히 벡은 1919년 7월 미국 마이애미교회 박람회 ‘제암리사건’ 사진을 전시한 데 이어 상원의원 노리스에게 이들 사진을 전달하였다. 1919년 5월부터 9월 사이 미국 2백여 곳 30만 명 미국인 대상으로 한국 참상을 강연하였고, 1920년 중반 4개월 동안 뉴욕주, 뉴저지주, 펜실베이니아주, 코네티컷주, 매사추세츠주 등 4개 주와 중북부 지역의 10만 명에게 한국문제를 강연하였다.

영국의 한국친우회는 언론인 프레드릭 맥켄지의 활동으로 창립되었다.

---

17) 이만열(1989), 「한말 미국계 의료선교를 통한 서양의학의 수용」, 『국사관논총』 3; 문백란(2014), 「한말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의 한국인식과 선교활동」, 연세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20년 10월 26일 영국 하원 의사당 제6호 위원실에서 창립되었는데, 창립대회 의장은 로버트 뉴맨(Sir Robert Newman, Bart), 서기는 윌리엄스(W. Llew Williams)였다. 영국 국회 대의사 17명, 에덴버그대학 학장을 포함한 학자 6명, 신문기자 4명, 교회 목사 9명, 귀족 3명 등 영국 내 유력인사 62명이 참여하였다. 창립 이후 회장 로버트 뉴맨 바트, 서기 윌리엄스, 회계 하이슬로프(Walter G. Hislop) 및 집행위원 6명을 선출하였으며, 맥켄지는 간사직을 담당하였다.<sup>18)</sup>

프랑스의 한국친우회는 정치가 루이 마랭(Louis Marin)이 1921년 6월 23일에 창립하였다. 마랭이 사무국 의장을 맡고 중국인 사회운동가 사동발(謝東發)이 사무국장을 담당하였다. 임원 11명, 행동위원회 5명, 기타 회원 7명 등 총 23명으로 조직되었다. 그러나 파리에서 한국친우회를 조직할 때 동참했던 황기환이 미국으로 간 1921년 7월 이후에는 임시정부 차원의 공식적 대유럽 외교활동이 중단됨으로써 런던과 프랑스의 한국친우회는 그다지 활동을 하지 못했다.<sup>19)</sup>

### 3.3. 중국 관내와 일본에서의 한국 독립운동 지원

한국이 일본에 병탄된 1910년 전후는 중국에서 반청 혁명 운동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시기였다. 1894년 청일전쟁의 패배 이후 청 정부는 서구 열강에게 이권을 계속해서 빼앗겨갔다. 중국에서는 그야말로 오이가 쪼개지듯 갈라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청 정부는 서태후(西太后)의 입김 아래 본격적인 개혁을 추진하지 못한 채 지지부진

18) 구대열(1989), 「영국과 한국 독립운동」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 독립운동사』 6; 고정휴(2004), pp. 368-369.

19) 이옥(1989), 「프랑스와 한국독립운동」,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민족독립운동사』 6; 홍선표(2006), 「1920년대 유럽에서의 한국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7; 김도형(2012), pp. 550-552.

한 상태였다. 무장봉기를 시도했다가 실패하여 망명 중이던 손문은 1905년 8월 일본에서 중국혁명동맹회를 결성하였다. 1911년 5월 청 정부가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철도 국유화 정책을 발표하자 이에 대한 반발로 10월 10일 무창봉기(武昌蜂起)를 시작으로 하여, 전국 각지에서 반청(反淸) 봉기가 발생하였다. 불과 1개월 만에 거의 모든 성에서 봉기가 일어나고 남경에 새로운 정부가 세워졌다. 이것이 신해혁명(辛亥革命)이다.

미국에서 무창 봉기의 성공 소식을 접한 손문은 중국으로 돌아와 1912년 1월 1일 남경에서 혁명군의 임시대총통으로 취임함과 동시에 남경임시정부를 조직하고 공화제의 중화민국이 설립되었음을 선포하였다. 무창 봉기에 놀란 청 정부는 북경 일대의 실력자였던 원세개(袁世凱)를 기용하여 혁명세력을 토벌할 것을 지시하였다. 군사적,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린 손문은 청 황제가 퇴위하고 공화제를 채택하는 조건으로 원세개를 임시대총통으로 승인한다고 약속하였다. 1912년 2월 12일 원세개의 압력으로 청의 황제가 퇴위를 선언함으로써 2백여 년간 이어져 온 청 왕조가 멸망하였다. 2월 15일 북경에서 원세개가 그 자리를 이어받아 임시대총통에 취임하였고, 임시정부는 위안스카이의 행동을 규제하기 위해 내각중심제를 기본으로 한 「임시약법」을 공포하였다.<sup>20)</sup>

그러나 1913년 2월 총선거에서 손문과 혁명파를 중심으로 하는 국민당이 원세개의 정부 여당을 누르고 압도적인 승리를 차지하였다. 대총통직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세개는 국민당의 대총통 후보였던 송교인(宋教仁)을 암살하고 국민당을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손문은 원세개 타도를 위한 무력 봉기를 일으켰으나 실패하여 다시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일본에서 중화혁명당을 결성하고 기존의 임시약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호법운동(護法運動)을 벌였다.

20) 손문에 대한 저작으로는 시프린(1990), 민두기 옮김, 『손문 평전』, 지식산업사; 요코야마 스구루·나카야마 요시히로 지음(1990), 민중사상연구소 옮김, 『쑨원』, 참한출판사; 배경한(2008), 『쑨원과 한국』, 한울 아카데미 참조.

원세개는 1916년 초 스스로 황제가 되려는 시도를 하였지만, 각 지방에서의 반발과 열강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이후 북경을 중심으로 군벌 세력들이 계속해서 임시약법을 농단하자 광동을 중심으로 임시약법에 따른 정부를 새롭게 구성하려는 노력이 일어났다. 1917년 9월 손문은 이러한 서남지역 군벌들의 추대를 받아 광동군정부(廣東軍政府)의 대원수로 취임하였으니, 이것이 제1차 호법정부(護法政府)였다. 그러나 대원수 손문은 실권이 없었고 군벌들의 명분 획득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 결국 손문은 1918년 5월 대원수직을 사임하고 상해로 망명하였다.

1919년 5월 제1차세계대전 종료 후 파리강화회의에서 독일이 차지하고 있던 산둥성(山東省) 이권을 일본이 승계하는 것으로 결정되고 이를 북경정부가 승인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이에 분노하여 북경대학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집회가 열리고 각지 민중이 동조하며 봉기하기 시작하였으니 이것이 5·4운동이었다. 북경정부는 군사력으로 5·4운동을 막으려 하였지만, 전국 각지에서 파업, 철시, 시위, 폭동 등이 일어났고, 북경 정부는 파리강화조약의 승인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

손문은 이를 계기로 중화혁명당을 일반 대중을 포괄할 수 있는 중국국민당으로 개조하고, 1920년 11월 광동 군벌과 연합하여 제2차 호법정부를 광주에 설립하였다. 이어 1921년 5월에는 광동에서 정식으로 중화민국의 총통에 취임하였다. 이로써 중국에는 북경을 중심으로 한 군벌 세력의 북양정부, 손문을 중심으로 한 광동정부(제2차 호법정부) 두 개의 정부가 존속하였다. 이후 1924년 국공합작이 성립하고 혁명군 육성을 위해 황포군관학교가 설립되었다. 북벌에 나섰던 손문이 1925년 사망한 후 장개석이 국민혁명군 총사령에 취임하여 중국 통일을 위한 북벌을 계속 추진하였다. 1927년 4월 장개석의 상해 쿠데타로 국공합작이 깨지고 국민당 내부의 대결 구도가 성립했으나 타협에 의해 무한 국민정부로 통합되고 장개석은 다시 북벌을 계속하여 1928년 후반에 전 중국 통일을 완료하였다.

1911년 신해혁명의 성공 소식은 한국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이들 중에는 중국의 혁명으로부터 한국 독립의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하여 자신이 직접 중국혁명에 가담하려는 신규식 같은 인물도 있었다. 신규식은 한국 독립운동을 위해 박은식, 신채호, 문일평 등 30여 명과 남경에 동제사(同濟社)를 결성하고, 이와 별도로 1912년 한국과 중국의 혁명지사들을 연결하기 위하여 신아동제사(新亞同濟社)를 설립하였다. 신아동제사에는 국민당 혁명파였던 송교인(宋教仁), 진기미(陳其美), 호한민(胡漢民), 장계(張繼) 등이 참여하였다.

1921년 광동에 제2차 호법정부가 수립되자, 중국에 망명해 있던 한국 독립운동가들은 호법정부와의 연대를 통해 한국의 독립을 성취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였다. 그 중 신규식은 1921년 11월 손문을 만나 두 시간 동안 환담을 나누고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승인해 줄 것, 중화민국 군관학교에 한국 학생들을 받아들일 것, 차관과 조차지를 제공해 줄 것 등에 대해 긍정적인 답을 받았다. 1922년 2월 초 이 합의에 따라 박찬익이 광주 주재 대표로 파견되어 호법정부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승인하였다.<sup>21)</sup>

신아동제사에 참여하였던 인물 중 호한민은 일찍이 1912년부터 신규식과 손문의 만남을 주선하고 광동 제2차 호법정부 수립 이후 비서장이자 총참의 자격으로 신규식 일행을 손문에게 안내하였다. 그는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해 가장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1924년 제1차 국공합작 이후 중국국민당을 영도하다가 중국국민당 좌파와 중국공산당의 정치 공세에 밀려 숙청되었다. 그런데 숙청에서 돌아올 때 그는 한국인 청년 13명을 데려와 황포군관학교에 입학시켰다.<sup>22)</sup>

21) 김희곤(2006), 「신규식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교활동」, 『중원문화연구』 13; 魏志江(2007), 「한국독립운동과 중국 광주의 관계」, 『백범과 민족운동연구』 5, 백범학술원.

22) 배경현(1999), 「상해·남경지역의 초기(1911-1913) 한인망명자들과 신해혁명 — 무창기의·토원운동에의 참여와 손문·혁명파 인사들과의 교류를 중심으로 —」, 『동양사학연구』 67.

진기미는 신해혁명기 상해를 공격하여 점령한 봉기군의 우두머리였는데, 원세개 토벌군의 총사령관을 역임하기도 한 인물이다. 그는 일본과 중국을 오가며 원세개 타도에 매진하다가 오히려 원세개가 보낸 암살범에 의해 38세에 살해되고 말았다. 그러나 그 사이에 그는 한국뿐 아니라 베트남, 인도 등 아시아 약소 민족의 독립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는 1912년 말 원세개로부터 받은 회유 자금 4만 원 가운데 8,000원 가량을 한국, 베트남, 인도의 독립운동가들을 도와주고 중국에 있는 한국인 유학생들의 학비를 보조하는 데 사용하였다.<sup>23)</sup>

송교인 역시 신아동제사에 가입하여 한국 독립 문제에 관심을 보인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1913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당 내각의 수반으로 촉망받던 중 원세개가 보낸 암살자의 총탄에 피격되어 31세로 사망하고 말았다.<sup>24)</sup>

황각(黃覺)도 신아동제사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일본 메이지대학 유학 후 아나키즘에 기울었다. 김철수 등과 신아동맹단을 결성하고 귀국 후에는 신문 발행인으로 한국인 사회주의자 조동호를 기자로 채용하고 1918년 김홍일의 귀주군관학교 입학을 주선하였다. 상해에서 열린 삼일운동 기념식에 여러 차례 참석하여 한중 연대를 강조하고 한국 독립운동을 지지하는 연설을 하였다.<sup>25)</sup>

신아동제사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황흥(黃興), 임삼(林森), 여천민(呂天民), 당계요(唐繼堯) 등이 한국의 독립운동을 후원하였다. 황흥은 신해혁명 직후 1912년에 수립된 임시정부의 육군총장으로 원세개에게 쫓겨 일본에 망명 중 중화혁명당의 조직 노선을 둘러싸고 손문과 대립 갈등하

23) 배경한(1999); 「百度百科 陈其美」 바이두 백과사전, 바이두, 2020. 4. 11. <https://baike.baidu.com/item/陈其美>

24) 薛君度(1969), 「송교인과 중국의 민주시도 실패」, 『아세아연구』 12-2.

25) 배경한(1999); 최선웅(2006), 「1910년대 제일유학생단체 신아동맹당의 반일운동과 근대적 구상」, 『역사와 현실』 60.

였다. 1916년 42세에 사망하였으나 신규식과 1910년대 초에 개인적으로 편지 왕래를 하였고, 북경에서 한국인이 체포되어 일본 영사관에 넘겨졌을 때 신규식의 부탁으로 석방 운동에 나서주었다.<sup>26)</sup>

임삼은 손문과 함께 신해혁명에 참여하고 제1차 호법정부의 외교부장을 역임하고 1921년 제2차 호법정부에서는 국회의장에 선출되고 손문을 총통으로 추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거물급 정치가였다. 이 시기에 삼일운동 이후 중국으로 망명한 한국 독립운동가들과 중국인들이 1921년 9월 27일 중한협회라는 연대 조직을 만들었다. 임삼은 이 협회에서 발간한 기관지 『광명』(光明)에 한국 독립운동에 대한 격려와 조언을 하는 글을 투고하였으며, 1921년 광둥 호법정부 비상국회에서 한국독립에 관한 승인안이 상정되어 가결되는 데에도 기여하였다.<sup>27)</sup>

여천민은 일본에서 손문과 함께 중국동맹회에서 활동하다가 신해혁명 기에는 운남도독부 참의, 남경 임시정부에서 사법부 차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그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신문』 정간 이후 신규식이 발간한 주보 『진단』(震旦)에 축하 인사 원고를 보내고 1921년 중화전국각계연합회에서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한국독립을 원조해야 한다는 의안을 제출하여 가결하게 하는 등으로 도움을 주었다.<sup>28)</sup>

당계요는 운남성 북벌군 총사령관으로 신해혁명에 참여하고 제1차 호법정부에서 손문이 대원수로 추대될 때 원수로 추대되었던 인물이다. 그는 1920년대 초까지 운남군을 중심으로 사천·귀주·호북·하남·섬서·강서 등 7개 성의 건국연군총사령에 취임하는 등 중국 서남부 지역 최대 군벌로 등장하였다. 손문이 국공합작 이후 북벌 동참을 요청했을 때 거절했던 그는 손문이 죽은 후 광둥 국민당 정부를 전복시키려 하다가 부

26) 薛君度(1966), 「황흥과 신해혁명」, 『아세아연구』 9-4.

27) 김희곤(2006).

28) 유하·우림걸(2017), 「진단(震檀)을 통해본 근대 한중 교류의 한 단면」, 『한국학연구』 46,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하들에게 축출당하고 말았다. 그는 군벌 가운데 가장 열렬히 한국의 독립을 지원하였다. 1916년 이범석(李範奭) 등 4명의 학생을 운남육군강무당에 입학시켰으며, 1920년대 초에도 신규식의 요청을 받아 한국인 청년 30~50여 명을 받아들였다. 운남강무당 출신으로 동북항일연군으로 활약한 최용건(崔庸健), 한국 최초의 여성비행사로 중일전쟁에 참전한 권기옥(權基玉) 등이 있다.<sup>29)</sup>

한편, 일본과 한국에서는 1923년 관동대진재를 전후하여 대규모 격변이 있었다. 관동대진재에서 한국인 6천여 명이 학살되고 일본인과 중국인도 수만 명이 지진과 화재로 사망하고, 사회주의, 아나키즘 등 급진적인 사상이 노동운동·농민운동 등과 결부하여 확산되었다. 일본 정부와 조선 총독부는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무자비한 탄압에 나서고 1925년 「치안유지법」이라는 악법을 제정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아나키즘 운동에 투신했다가 희생된 인물이 가네코 후미코(金子文子)이다. 그녀는 김약수, 정태성 등 한국인 공산주의자들과 교류하다가 박열을 만나 그와 동거를 시작하면서 흑도회, 불령사 등의 사회운동 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한국인들과 함께 사회운동을 추진하던 중 체포된 그녀와 박열은 일본 천황제에 도전하는 대역 사건 범인으로 조작 및 기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히려 이 과정을 천황제에 대해 투쟁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전향하지 않고 사형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들을 변호한 일본인 변호사 후세 다쓰지(布施辰治)는 일본 내의 각종 노동쟁의와 소작쟁의, 치안 관련 사건 등의 변호에 힘써 왔던 인물이다. 그는 한국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2·8 독립선언에 참여한 학생들을 변호하였고, 자살한 가네코 후미코의 시신을 수습해 주었다. 도쿄 니쥬바시에서 폭탄 투척한 의열단원 김지섭, 조선공산당사건으로 체포된 100명

29) 裴淑姬(2008), 「中國雲南陸軍講武堂與韓籍學員 — 以『同學錄』的分析爲中心 —」, 『중국사연구』 56, 중국사학회.

의 피고인들에 대한 변호도 맡았으며, 1923년 관동대진재 후 일본 내에서 벌어진 한국인 학살과 관련해서 한국 내 언론사에 사죄의 글을 보내기도 하였다.<sup>30)</sup>

#### 4.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 독립운동(1931~1945년)

##### 4.1. 국내의 천주교 신부와 미국인·캐나다인 단체

1937년 일본은 중일전쟁을 도발하고 1940년 9월 독일·이탈리아와 제휴를 통해 아시아·태평양전쟁으로 전쟁을 확대하였다. 1939년 11월 「외국인의 입국 체재 및 퇴거령」, 1940년 9월 「한국 기독교도 불온분자 검거령」을 공포하여 기독교에 대한 본격적 규제를 시작하였다. 1938년 말 기독교와 천주교 선교사 수는 420명이었지만 한국인 신자는 개신교 28만여 명, 천주교 12만여 명으로 일본으로서는 결코 무시하기 어려운 숫자였다.

1941년 12월 8일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평양 교구에서 활동 중이던 미국인 선교사 35명을 적성국 국민으로, 광주교구와 춘천교구에서 활동 중이던 아일랜드인 골롬반회 선교사 32명을 준적성국 국민으로 체포하였다. 제주도에서는 패트릭 도슨(Patrick Dawson), 토마스 라이언(Thomas D. Ryan), 어거스틴 스위니(Augustine Sweeney) 등 3명의 신부와 32명의 제주도 내 천주교 신자를 체포하였다. 1942년 10월 도슨은 육군형법과 해군형법 위반죄 및 불경죄(不敬罪)로 징역 2년 6개월, 군기보호법과 군기보호법 시행규칙 위반죄로 2년 6개월, 총합 징역 5년, 라이언 신부와 스위니 신부는 똑같이 육군형법과 해군형법 위반죄로 금고 2년을

---

30) 이규수(2003), 「후세 다츠지(布施辰治)의 한국인식」 『한국근현대사연구』 25, 한국근현대사학회; 오오이시 스스무·고사명·이형남·이규수(2010), 임희경 역, 『조선을 위해 일생을 바친 후세 다츠지』, 지식여행, pp. 28-62.

각각 연도받았다.

조선총독부가 다른 지역과 달리 유독 제주도에서 활동한 이들 신부에 계만 실형을 연도한 이유가 있었다. 이들은 제주도에선 진행하고 있는 일본의 군사 비행장 건설과 여기서 발진한 비행기들이 중국 내륙과 남경 등지를 폭격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이들이 아일랜드로 돌아가면서 이 사실을 연합국 측에 전파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또, 이들 신부가 일본 정부가 알려주는 현황만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황청이나 다른 지역 선교사들로부터 정확한 국제 정세를 파악하여 신도들에게 전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sup>31)</sup>

한편, 중일전쟁 이후 중경으로 옮겨간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40년 9월 “한국과 중국 두 나라 공동의 적인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며 연합국의 일원으로 항전할 것을 목적으로” 광복군을 창설하였다. 그러나 광복군을 확대 발전시키나갈 인적·물적 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기에 당분간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하여 중국측이 요구한 「한국광복군 행동준수 9개항」을 수락하여 광복군이 중국군의 명령과 지휘를 받게 되었다. 이로부터 벗어나고자 임시정부는 미국의 지원을 얻으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 1925년에 탄핵했던 이승만을 1941년 6월 주미외교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그에게 대미 교섭의 전권을 위임하였다.

이승만은 1920년대 초 구미위원부와 한국친우회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방식을 그대로 재연하였다. 즉, 주미외교위원부가 중심이 되고 한미협회는 미국 정부에 대한 로비 및 선전 활동을 전개하며, 이를 위해 대중조직으로 미국 전역에 기독교인 친한회(The Christian Friends of Korea)를 조직하였다. 한미협회는 1942년 1월 16일에 창설되고 이사회는 8명, 전국위원회는 28명으로 구성하였다.<sup>32)</sup>

31) 윤선자(2005), 「1940년대 전시체제와 제주도천주교회」,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5.

32) 이상의 내용은 다음 논저를 참조하였다. 정병준(1998), 「이승만의 정치고문들」, 『역사비평』 43; 고정휴(2004), pp. 148-170, pp. 425-278.; 홍선표(2012), pp. 214-232.

한미협회 이사장은 워싱턴 파운드리교회 목사였던 프레데릭 해리스(Frederick B. Harris)였다. 그는 1942년부터 1946년까지 미국 상원의 담임 목사이면서 트루만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이승만에게 미국 정계의 요인들을 소개해주는 역할을 하였다.<sup>33)</sup> 이사회 회장 제임스 크롬웰(James Henry Roberts Cromwell)은 기업가이면서 캐나다대사를 역임하기도 한 인물로 국무부와의 교섭을 중개해주었다. 재무담당 제이 윌리엄스(Jay Jerome Williams)는 언론인으로 1934년 이승만이 잡지 『극동』(The Orient)을 창간할 때부터 같이 했으며, 한국에 대한 홍보와 선전 업무를 맡았다. 법률고문 존 스태거즈(John W. Staggers)는 변호사로서, 주미외교위원부와 이승만의 각종 법률적 업무와 자문을 담당하였다.<sup>34)</sup>

한미협회 전국위원회 위원 중 모리스 윌리엄(Maurice William)은 치과 의사 출신의 사회사상가로, 아시아 약소 민족의 단결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국민당을 지원한 인물이다.<sup>35)</sup> 조지 피치(George Ashmore Fitch)는 1909~45년간 중국 각지에서 YMCA 총간사를 역임한 선교사로서 손문·장개석 등 중국국민당과 친밀하며 그 부인 제랄딘은 장개석 부인 송미령과도 친밀한 관계였다.<sup>36)</sup> 폴 더글라스(Paul Fredrick Douglass)는 아메리칸대학 총장으로 기독교인친한회 회장까지 맡았던 인물이다.<sup>37)</sup>

한편 1942년 기독교인친한회를 조직할 때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한 인물은 캐나다인 올리버 에비슨(Olver R. Avison)이었다. 에비슨은 1893년부터 한국에 와서 고종의 시의 겸 제중원 의사로 활동하면서 1904년 세브란

33) 유지윤·김명섭(2018), 「프레데릭 B. 해리스의 한국관련 활동 : 이승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40-1.

34) 정병준(1998); 고정휴(2004); 홍선표(2012); 유지윤·김명섭(2018).

35) 고정휴(2004), p. 431.

36) 홍선표(2012); 김주성(2017), 「미국 선교사 Fitch 일가의 한국독립운동 지원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7; 정병준(2019), 「중국 관내 신한청년당과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5.

37) 홍선표(2012), pp. 223-225.

스병원을 건립하고 1910년대 연희전문학교와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교장을 겸임했다. 기독교인친한회를 창립한 이후 서기 겸 재무를 담당하였다.<sup>38)</sup>

이승만은 이러한 조직과 인맥을 동원하여 미국 정부가 임시정부를 정식 정부로 승인하고 광복군을 지원하게 만드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해리스 목사와 윌리엄스 기자, 스태거즈 변호사 등 3인은 1942년 1월 『한국사정』이라는 문건을 작성하여 미국 국무부에 보내 이승만을 임시정부의 공식적인 외교 대표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1942년 2월 초에는 일본인들에 대항하기 위해 한국인을 도와야 하며, 이를 위해 이승만의 활동을 후원해야 한다는 호소문을 작성하여 미국 전쟁부 장관에게 발송하였다.

가장 주목할 만한 활동은 이들이 1942년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재미한족연합회와 함께 워싱턴 백악관 근처의 라파예트호텔에서 개최한 ‘한인자유대회’였다. 미국 각지에서 온 한국인 100여 명과 워싱턴의 정치가들이 참여한 이 대회에서 해리스, 스태거즈, 윌리엄스 등은 차례차례 연단에 올라 미국정부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승인하고 이승만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대회를 참관했던 미 국무부의 혼벡(Stanley K. Hornbeck)과 랭던(William R. Langdon)은 부정적인 인상만 받았다. 이 대회에서는 일본에 대한 저항이나 한국 독립에 대한 계획은 한마디도 없었고, 한국의 독립운동이 미국의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한국인들이 스스로 독립을 쟁취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지적하였다. 이 무렵 미국 국무부는 전쟁 이후 한국의 독립과 임시정부 승인을 유보하고 그 대신 연합국의 신탁통치를 구상하고 있었던 것이다.<sup>39)</sup>

38) 이광린(1992), 『올리버 알 에비슨의 생애 : 한국 근대 서양의학과 근대교육의 개척자』, 연세대학교출판부; 고정휴(2004), p. 155, p. 431.

39) 고정휴(2004), pp. 434-436.

#### 4.2. 중국 국민당 정부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지원

1931년 만주사변으로 일본이 중국을 침략한 후 1932년에는 윤봉길이 폭탄 테러를 벌여 상해파견 일본군사령관 등 여러 명을 폭살 또는 부상시키는 쾌거가 일어났다. 중국 국민당 정부의 주석 겸 육해공군총사령이었던 장개석은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때부터 중국 국민당 정부의 요인들은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 인사들을 일본의 추격과 감시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한국 독립운동에 물질적 후원을 하기 시작하였다.

1937년 일본과의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된 이후 국민당 정부가 일본군에 밀려 수도 남경을 잃고 중경을 임시수도로 삼아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역시 1932년 윤봉길 의거 직후 상해를 떠난 이후, 항주, 남경, 장사, 광주 등을 거쳐 1939년 중경에 자리를 잡았다.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는 항일전쟁에 참여하기 위한 광복군의 양성과 열강으로부터의 정부 승인을 공식 목표로 삼았다.

열강, 특히 미국으로부터의 정부 승인은 이승만에게 전권을 맡겨 진행했으나 지지부진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광복군 양성은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과 제약 하에서 이루어졌다. 국민당 정부는 한국인들에게 군사 훈련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였고, 일선 부대들이 광복군과 협력하여 초모 작전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국광복군행동9개준승」(韓國光復軍行動九個準繩)을 통해 광복군을 중국 군사위원회에 예속시켜 자유로운 행동을 할 수 없도록 제약하였다.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은 세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상해와 만주 지역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보호나 지원, 중국과 한국의 연합을 위한 연대 활동 및 중한문화협회 창립, 광복군 지원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승인 노력 등이다.

손문과 함께 제2차 호법정부에 참여하고 상해법과대학 교장을 역임한

저보성(褚輔成)은 윤봉길 의거 이후 일본군의 표적이 된 김구, 엄항섭, 이동녕 등을 자기 고향인 가흥의 자택으로 피신시켜 주었다. 1940년 5월 국민참정회 참정원으로 중국과 한국의 혁명운동 후원 및 일본의 조속한 붕괴 촉진 방안을 결의하는 데도 앞장섰다. 만주 흑룡강성 행정장관이었던 주경란은 1920년대 초 김정친의 대한혁명단 활동을 원조하고 1931년에는 동북항일의용군을 후원하였다. 윤봉길 의거 이후에는 김구, 최동오, 김원봉, 신익희 등에게 300~1,000불을 전달하였다.<sup>40)</sup>

한중 연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한 인물은 수십여 명에 달한다. 그 중에서 중한문화협회를 창립하는 데 주도적 활동을 한 것은 손문의 아들로 국민당 정부의 입법원장이었던 손과(孫科)와 중화민국 외교부 동아시아(東亞司)의 책임자 사도덕(司徒德), 그리고 천주교 신부 우빈(于斌)을 들 수 있다.

손과는 제1차 호법정부 수립 때부터 활동해오다가 장개석의 무한 쿠데타 이후 장개석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였다. 그는 1942년 1월부터 조소앙과 함께 중한문화협회 결성을 논의하여 1942년 10월에 발족시켰다. 발족식은 한국 측 인사로 임시정부 주석 김구, 외교부장 조소앙, 광복군 총사령 이청천, 광복군 부총사령 김원봉, 중국측 인사로 손과를 비롯하여 오철성(吳鐵城), 백송희(白崇禧), 풍옥상(馮玉祥), 우빈 등 400여 명이 모인 성대한 성립대회였다. 발족 당시 회원은 668명이었고, 이사장은 손과, 부이사장은 한국의 김규식이 선출되었다.<sup>41)</sup>

사도덕은 임시정부 측 신익희와 함께 준비 실무단의 책임을 맡았다가 발족 이후에는 비서장으로 선임되었다. 이후 사도덕은 삼일운동 기념 강연회나 중한문화협회 창립기념일 연례 행사, 임시정부 승인 문제에 관한 토론회, 일본군 진영 탈출 병사를 위한 환영회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다. 1943년 12월 카이로회담에서 한국의 독립 문제가 발표되자 사도덕은

40) 魏志江(2007), 「한국독립운동과 중국 광주의 관계」, 『백범과 민족운동연구』 5, 백범학술원.

41) 한시준(2010), 「중한문화협회의 성립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5.

담화를 발표해 동맹국들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조속히 승인할 것을 촉구하였다.<sup>42)</sup>

이 밖에 증한협회 이사 또는 명예이사로 활동한 인물로 중국 국민당 정부의 원로격인 장계(張繼), 만주지역 군벌 장학량의 참모 막덕혜(莫德惠),<sup>43)</sup> 국민당 정부 정보조직의 책임자급 진과부(陳果夫)·진입부(陳立夫)<sup>44)</sup> 형제와 주가화(朱家驊),<sup>45)</sup> 국민정부 행정위원 왕죽일(汪竹一)<sup>46)</sup> 등이 있다.

광복군 지원에 직접 관여한 인물로는 장개석(蔣介石), 곽태기(郭泰祺),<sup>47)</sup> 진과부·진입부 형제, 주가화, 대립(戴笠), 진성(陳誠) 등이 있다. 장개석은 손문 사망 후 국민당 정부의 사실상 제1인자로 군림하였고 광복군 지원도 그의 지시가 없으면 성립될 수 없었다. 그러나 장개석은 외교부장 곽태기와 증한문화협회가 대한민국임시정부 승인을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망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이는 한국 독립운동 단체 간의 대립 갈등이 심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한국인들의 독립 의지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점, 따라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정식 승인을 받으려면 다른 한국인 독립운동 단체를 통합해올 것을 요구했던 그의 입장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개석은 1943년 11월 카이로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을 선언문 안에 넣을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다만, 이를 받아들인 미국 루즈벨트

42) 한시준(2010); 한중문화협회(2013), 『한중문화협회연구』, 늘봄플러스.

43) 송한용(1998), 「1928년 장학량 정권의 동북역치」, 『역사학연구』 12; 송한용(2000), 「장학량과 중동로사건」, 『중국사연구』 10; 유용태(2004), 「국민회의에서 국민참정회로, 1931-1938」, 『중국근현대사연구』 23.

44) 노경채(1997); 김정현(2012), 「제1·2차 국공합작기의 한·중 연대활동 — 황포군관학교 인맥을 중심으로 —」, 『역사학연구』 46, 호남사학회; 양지선(2016), 「한국독립운동세력과 CC파·역행사의 공동 첩보활동」, 『동양학』 62,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45) 胡春惠(1992), 「朱家驊與韓國獨立運動」, 『수춘박영석교수화갑기념 한민족독립운동사논총』; 노경채(1997).

46) 한시준(2010); 한중문화협회(2013).

47) 刘金华(2007), 「郭泰祺：“被遗忘的外交家”」, 『世界知识』 Issue 12.

대통령이 신탁통치 구상을 염두에 두고 ‘적당한 절차를 거쳐’라는 문구를 넣은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았다.<sup>48)</sup>

장개석의 지시를 받아 광복군 또는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담당한 것은 진과부·진입부 형제, 주가화 등 비밀정보조직 중앙구락부(CC)의 책임자, 그리고 남의사로 유명한 삼민주의역행사 조직의 책임자였던 대립, 호종남(胡宗南), 유영요(劉詠堯) 등이었다. 이들은 광복군 창립 이전부터 일본군에 대한 작전 수행을 위해 김원봉의 의열단·조선 민족혁명당을 지원하였으며, 중국 중앙육군관학교 내에 한국인 특별반을 개설하여 한국인 청년 장교를 양성하였다. 또, 중국군 사단 내에 한국 청년 전지공작대(호종남) 또는 조선 혁명 군사 정치 간부학교(대립)를 설립하고 운영하도록 지원을 해주었다.<sup>49)</sup>

광복군과는 별도로, 김원봉이 조직한 조선의용대에 대해서는 국민당 군사령관이었던 진성(陳誠)이 1938년 일본군의 공격으로부터 무한을 수비하기 위하여 경비를 원조하였다. 이 경우 조선의용대는 중국 군사위원회(장개석 위원장) → 정치부 → 지도위원회 → 조선의용대 대본부로 이어지는 지휘체제로 편제되었는데, 이러한 통제 체계는 광복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졌다.<sup>50)</sup>

이 외에 호남성 일대를 지키던 제9전구 사령장관 설악(薛岳)은 일본군에서 탈출한 한국인 병사 120여 명을 광복군 제1지대에 편입시키고 그 경비를 지원하였다.<sup>51)</sup> 강소성·절강성을 지키는 제3전구 사령부 장교 마수례

48) 배경한(1995), 『장개석연구』, 일조각, 1995; 배경한(2010), 「중일전쟁시기 장개석·국민정부의 대한정책」, 『역사학보』 208; 배경한(2014), 「카이로회담에서의 한국문제와 장개석」, 『역사학보』 224; 배경한(2017).

49) 염인호(2001), 『조선의용군의 독립운동』, 나남, pp. 44-46.; 김정현(2012); 양지선(2016).

50) 노경채(1997); 염인호(2001), pp. 58-75.

51) 한시준(1995), 「한국광복군 지대의 편성과 조직」, 『사학지』 28; 김광재(2007), 『한국광복군』,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p. 147.

(馬樹禮)는 광복군 모집을 위한 건물을 제공하고 일본군으로 징병된 한국인을 설득 및 귀순하는 방송을 전담하였다.<sup>52)</sup> 외국인 독립유공자 중 가장 젊은 소경화(蘇景和)는 남경 중앙대학 재학 중 송지영, 조일문 등 한국인 유학생이 조직한 한족동맹과 함께 광복군 모집 활동을 벌여, 한국인 청년 250명 정도를 1천 km 떨어진 서안까지 후송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sup>53)</sup>

중국인 여성으로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은 이는 3명이다. 이 중 송미령(宋美齡)은 장개석의 부인으로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카이로회담 시 장개석의 통역을 맡아 식민지 중 유일하게 한국의 독립을 언급하게끔 노력하였고 한인애국단과 광복군에 찬조금을 보냈다.<sup>54)</sup> 두권혜이(杜君慧)는 1927년 광주 봉기 때 중산대학 기숙사 한국인 학생들의 광주 탈출을 도왔다. 독립운동가 김성숙과 결혼한 후 조선민족전선연맹의 허정숙 김원봉 등과 같이 지냈으며 중화문화협회 발기인으로도 참여하였다.<sup>55)</sup> 임시정부를 후원하던 중국인 이덕해의 딸 이숙진(李淑珍)은 한국국민당 조성환과 결혼하였으며, 임시정부의 여당 한국독립당 산하 단체로 창립된 한국여성동맹에 참여하여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sup>56)</sup>

---

5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1974), 『독립운동사』 6,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p. 234, p. 441.

53) 차대운(2019), 「3·1운동. 임정백주년」(48) 광복군 투신 중엘리트 쑤징허의 삶, 연합뉴스 웹사이트, 연합뉴스사, 2019. 12. 18. <https://www.yna.co.kr/view/AKR20190312150100089>.

54) 천팅이(2004), 이양자 옮김, 『송미령 평전』, 한울, pp. 481-489.; 배경환(2014).

55) 손엽홍(2008), 「1920년대 중국지역에서 전개한 김성숙의 민족혁명과 사회주의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44; 「百度百科 杜君慧」, 바이두 백과사전, 바이두, 2020. 4. 1. <https://baike.baidu.com/item/杜君慧>.

56) 김희곤(2013), 『조성환』, 역사공간, pp. 103-108.

## 5. 냉전 체제의 틀을 넘는 외국인 독립유공자 발굴을 위하여

지금까지 정리한 외국인 독립유공자는 네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재미 한국인 사회를 중심으로 추진된 독립운동을 지원하였거나 이승만의 독립운동에 도움을 준 인물들이다. 둘째,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원한 손문, 황흥, 장개석, 진과부 등 중국 국민당 요인들이다. 셋째, 알렌, 헐버트, 에비슨, 스코필드 등 미국·캐나다 선교사들이다. 넷째, 베델, 맥켄지, 조지 쇼 등 영국·아일랜드인과 후세 다쓰지, 가네코 후미코 등 일본인이다. 이렇게 외국인 독립유공자 포상의 폭이 제한적이었던 것은, 2000년 이전 역대 정권이 냉전 체제의 틀 내에서 반공 친미적 외교 정책을 유지해 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독립운동에는 삼일운동이나 대한민국임시정부, 이승만의 외교 독립운동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만주와 연해주 지역에서 많은 독립운동 단체들이 무장 독립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국내와 일본 본토에는 사회주의·아나키즘 계열 및 노동자·농민의 사회운동이 전개되고 있었다. 미국의 한국인 사회에도 이승만과 대립하면서 김원봉이나 안창호를 지원하는 독립운동 단체들이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 학술지에 게재된 미즈노 나오키, 김성호, 문미라 등 세 분의 글은 다음과 같은 점을 알려주고 있다. 첫째, 중국의 독립유공자 중 황각(黃覺)이나 대립(戴笠)은 대한민국임시정부뿐만 아니라 의열단·조선민족혁명당 등도 지원하였다. 두권웨이(杜君慧)와 이수진(李淑珍) 등은 독립운동가의 아내로만 조명되었지만, 남성들보다 더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였다. 둘째, 1920년대 이래 한국인 공산주의자들은 중국공산당과 함께 중국의 사회주의혁명과 한국의 해방을 위해 중국의 군벌, 지주 및 일본제국주의와 투쟁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과 중국인의 민족적 유대 관계가 형성되었다. 셋째, 일본인 노동자, 사무원, 학생, 지식인이면서도 식민지 한국의 변혁과 해방을 위해 활동하거나 한국인의

투쟁을 지원한 일본인들 중 악명 높은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기소 처벌된 이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향후 한국 정부는 이 같은 연구를 장려하여 외국인 독립유공자 발굴과 포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에만 한정하지 말고, 의열투쟁 및 무장투쟁 노선, 반이승만 단체, 사회주의, 아나키즘, 공산주의 등 다양한 독립운동 노선으로 시선을 돌릴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중국 국민당·공산당의 중요 인물, 일본 사회의 지식층에 한정하지 말고 사회 저변의 노동자, 농민 또는 일반 대중으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제국주의 국가의 일원이라고 하여 일본인 전체를 증오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그 중에도 한국의 독립에 공감하고 지원을 했던 인물들을 발굴하는 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동안의 외국인 독립유공자 발굴 시야는 지역적으로도 한국·중국·일본 동아시아 3국 및 미국·영국·캐나다 등 자본주의 진영에만 한정되어 있었다. 구소련과 동유럽, 동독 지역 등 구 사회주의 진영으로까지 발굴 대상 지역을 넓힘으로써 냉전 체제를 벗어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가져올 수 있는 관점을 갖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 참고문헌

### 【논 저】

- 고정휴(2004), 『이승만과 한국독립운동』, 연세대학교출판부
- 구대열(1986), 『제국주의와 언론; 배설, 대한매일신보 및 한·영·일 관계』, 이화여대 출판부.
- 김도형(2012), 「한국독립운동을 도운 유럽인 연구」, 『한국학논총』 37,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 김동진(2010), 『파란 눈의 한국혼 험버트』, 참좋은친구.
- 김승태(2006), 『한말·일제강점기 선교사 연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 김주성(2017), 「미국 선교사 Fitch 일가의 한국독립운동 지원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7.
- 김희곤(2006), 「신규식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교활동」, 『중원문화연구』 13.
- 노경채(1997), 「중국관내 조선인의 민족해방운동과 중국국민당」, 『아시아문화』 13.
- 도레사 E. 모티모어(2016), 전경미·양성현 역,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와 한국』, KIATS.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1974), 『독립운동사』 6,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 류대영(2001), 『초기 미국 선교사 연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 박종현(1995), 「송교인의 간도 혁명기지문」, 『경상사학』 11.
- 배경한(2014), 「카이로회담에서의 한국문제와 장개석」, 『역사학보』 224.
- \_\_\_\_\_(2010), 「중일전쟁시기 장개석·국민정부의 대한정책」, 『역사학보』 208.
- \_\_\_\_\_(2008), 『쑨원과 한국』, 한울 아카데미.
- 손정숙(2004), 「주한 미국공사 알렌(H. N. Allen)의 외교활동(1897~1905)」, 『이화사학연구』 31.
- 안드레 슈미드(2004), 「오리엔탈 식민주의의 도전 : Anglo-American 비판의 한계」, 『역사문제연구』 12.
- 염인호(2001), 『조선의용군의 독립운동』, 나남.
- 오승재·김조년·채진홍(2003), 『인돈 평전 : 윌리엄 린턴의 삶과 선교 사역』, 지식산업사.

- 오오이시 스스무·고사명·이형남·이규수(2010), 임희경 역, 『조선을 위해 일생을 바친 후세 다츠지』, 지식여행.
- 魏志江(2007), 「한국독립운동과 중국 광주의 관계」, 『백범과 민족운동연구』 5, 백범학술원.
- 윤선자(2005), 「1940년대 전시체제와 제주도천주교회」,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5.
- 이광린(1992), 『올리버 알 에비슨의 생애 : 한국 근대 서양의학과 근대교육의 개척자』, 연세대학교출판부.
- 이규수(2003), 「후세 다츠지(布施辰治)의 한국인식」 『한국근현대사연구』 25, 한국근현대사학회.
- 이동진(1992), 「한국교회와 송실의 은인 尹山濫」, 『인물로 본 송실 100년』 1집, 송실대학교.
- 이만열(2011), 「스코필드의 의료(교육)·사회 선교와 3·1독립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57.
- 정병준(1998), 「이승만의 정치고문들」, 『역사비평』 43.
- 정진석(2013), 『나는 죽을지라도 신보는 영생케 하여 한국동포를 구하라 — 대한매일신보 사장 배설의 열정적 생애 —』, 기과광.
- 천팅이(2004), 이양자 옮김, 『송미령 평전』, 한울.
- 한상도(2004), 『중국혁명 속의 한국독립운동』, 집문당.
- 한시준(2010), 「중한문화협회의 성립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5.
- 홍선표(2006), 「1920년대 유럽에서의 한국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7.
- \_\_\_\_\_(2012), 「한국독립운동을 도운 미국인」,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3.
- 「百度百科 杜君慧」, 바이두 백과사전, 바이두, 2020. 4. 1. <https://baike.baidu.com/item/杜君慧>.
- 「百度百科 陈其美」, 바이두 백과사전, 바이두, 2020. 4. 11. <https://baike.baidu.com/item/陈其美>.
- 刘金华(2007), 「郭泰祺: “被遗忘的外交家”」, 『世界知识』 12.
- 裴淑姬(2008), 「中國雲南陸軍講武堂與韓籍學員 — 以『同學錄』的分析爲中心 —」, 『중국사연구』 56, 중국사학회.

원고 접수일: 2020년 5월 10일

심사 완료일: 2020년 5월 16일

게재 확정일: 2020년 5월 16일

ABSTRACT

---

##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and Foreigners of National Merit

Do, Myoun-hoi\*

As of November 2019, there are a total of 89 foreigners of national merit from nine countries. Apart from 19 descendants of Koreans, their number totals 70. They are mostly missionaries from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Chinese Kuomintang members, and westerners who supported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eigners who supported independence movements affiliated with socialism and anarchism and various independence activist groups that opposed Rhee have been excluded from the Korean government's list of rewards. This was due to the division of Korea and the anti-communist pro-U.S. policies of the previous Korean governments. In order to achieve peace and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foreign independence fighters should be found and acknowledged more widely. It should be expanded, geographically, to those Russia, China, Eastern Europe, and Japan locally ideologically to include socialists and anarchists, as well as nationalist groups, that were at odds with Rhee and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and Culture, Daejeon University